

도야마현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

12 월 16 일 사망한 다카오카 고조공원내의 흑고니 2 마리가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1 마리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인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계란, 닭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조류의 시체를 발견하시게 되면,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도야마현 또는, 시정촌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생조류의 배설물에 접촉하셨을 시에는, 손을 씻고 양치를 깨끗이 하신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야마현과 다카오카시에서는 방역체제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